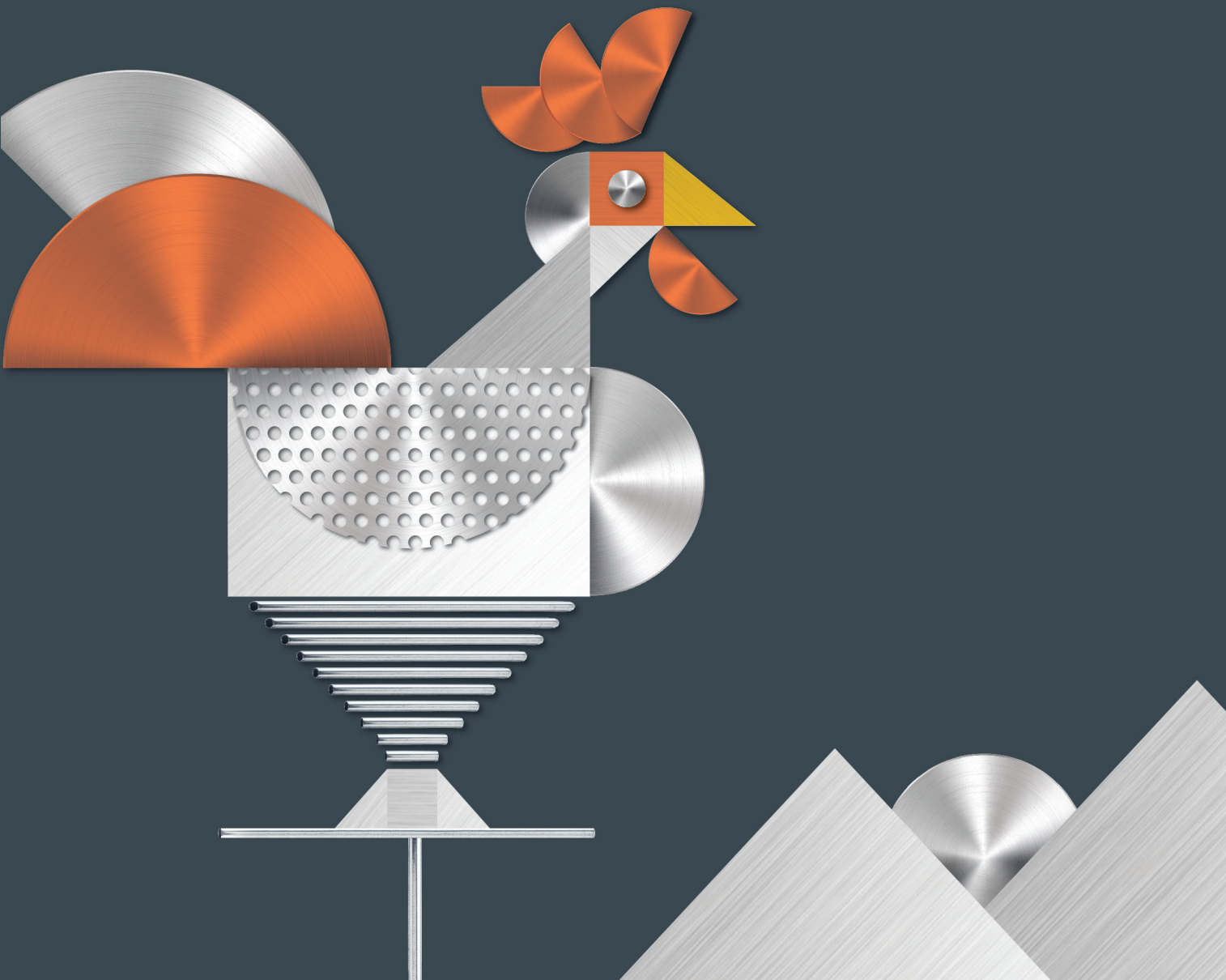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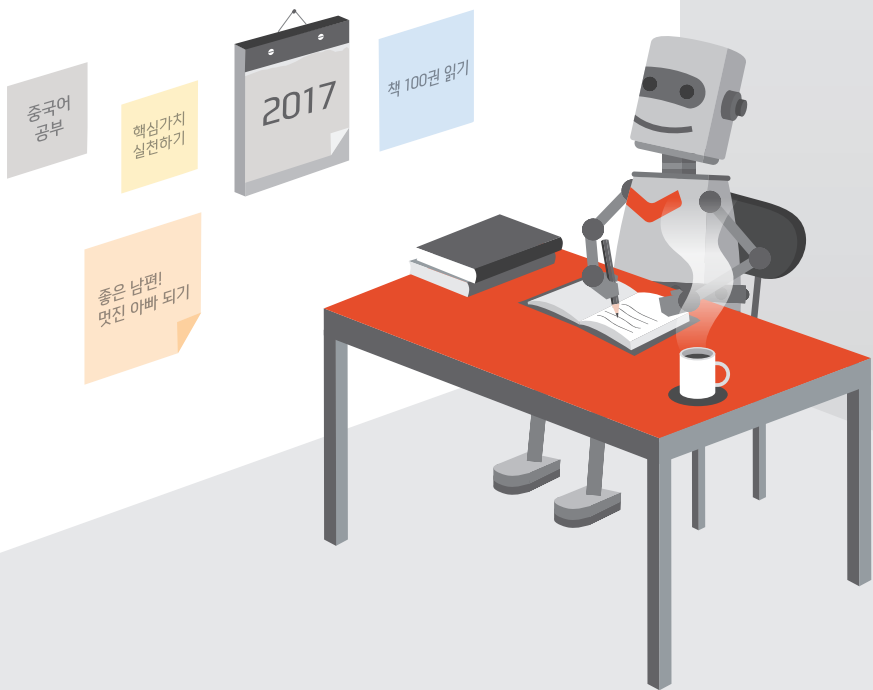


모두 이루어질 거예요

당신의 새해 새 꿈은 무엇인가요?
새해 세웠던 계획을 착실히 지켜가고 있나요?

더 좋은 자신, 더 좋은 일터,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을 세아가족이 함께 응원합니다.
2017년, 꿈꾸는 모든 소망을 이루세요.

SēAH





Cover Story

새해라는 이름을 가진 희망의 시간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정유년. 붉은 닭의 해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밝아오는 새날의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닭의 외침처럼, 세아도 위기와 난관을 이겨내고 밝은 기운이 가득한 한 해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새로운 계획과 실천으로 알찬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설레는 마음으로 2017년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Rising SeAH

- 04

테마 에세이

새날, 새 날을 세웁니다
- 06

테마 초대석

이순형 회장 신년사
- 10

테마 스토리

계획의 기술
- 14

테마 스페셜

2017년 세아인들의 새해 소망
- 16

세아는 지금

2017 세아그룹 신년회의
세아제강, 고강도 내진 강재 KS인증 취득
- 22

타임머신

세아제강 포항공장 및 기술연구소 설립
- 26

글로벌 세아인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
마케팅팀

Together SeAH

- 30

팀 플레이

세아 ESAB CBS 내재화 TF 프로젝트팀
- 34

특별한 만남

신임 임원들과의 만남
- 38

더불어 사는 세상

주식회사 세원
- 42

해피 패밀리

문자도 체험
- 46

컬처 가이드

공연장 좌석 선택의 꿀팁
- 48

SeAH News
- 49

People News
- 50

Post Box

발행일 2017년 2월 24일 발행인 서영범 발행처 세아홀딩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홍보파트 02-6970-0095 기획·디자인 (주)더윌호 02-733-0790
인쇄 드림인쇄(주) 02-464-6161 사진 A one Studio 02-553-4430 *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날, 새 날을 세웁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에 새해는 언제나 희망 그 자체입니다.
설레는 첫 마음으로 문을 연 2017년,
세아인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세우다'라는 단어는 '쳐져 있는 것을 곧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목표를 마음에 품고 결심할 때는 '뜻을 세우다'라고 표현합니다.
경쟁자와 싸워 이길 무기를 날카롭게 만듦을 일컬어
'날을 세우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지난 아쉬움과 미련은 묵은 해와 함께 보내고
새로운 출발에 앞서 우리의 목표와 경쟁력을 곧고 날카롭게 세울 때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바르게 세우고, 원대한 뜻과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무너지거나 휘청거리지 않도록 의지를 다져야 할 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다가올 변화에 대한 대책과 액션 플랜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성공의 새 역사를 세워나갈
우리의 새날, 새 시대가 밝았습니다.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한 해가 되기를

이순형 회장 신년사

세아 가족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며 미래를 향한 새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끓어오르는 쇠물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감과 투지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힘차게 질주합시다.

새해를 맞이하여 세아 가족에게 신년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모두는 무한 경쟁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세아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준 임직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새해를 시작하고 싶지만, 금년에도 지난 몇 년과 마찬가지로 철강 산업의 경영 환경이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앞서 막연한 희망보다는 지난해의 성과를 정리해보고 공과를 따져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어야만 한 차원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세아의 행보 및 성과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우리가 땀 흘리며 만들어낸 성과는 전반적으로 큰 폭의 부진함을 보였습니다. 2015년과 비교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하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역성장의 성적표를 받게 되니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철강재 가격의 지속적 하락,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성장사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성장이 흑시라도 습관화되어 세아인들이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당혹스럽고 우려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각자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무엇이 부족하였는지 자문, 반성해보고 스스로 채찍질하는 자세일 것이

66
우리는 기필코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돌격 앞으로'의 정신으로
공격적 경영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99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단한 저성장 국면과 혼란스러운 시
장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 세
아의 앞날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
을 보여준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업적 평가에서 세아경영상을 수상한 세아
특수강과 세아스틸비나(SSV), 세아 M&S
입니다. 이들 3개사의 성과는 세아의 미래
성장에 긍정의 불꽃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을 보여주는 증표로 생각되어 다소 위안
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취한 어떤 일에 있어서
도 우리 모두가 늘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
다. 그것은 우리의 경쟁사는 잠자는 법이
없는 토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
나는 5초 동안 성공을 기뻐하고 5시간 동
안 무엇을 더 잘 할 수 있었는지 반성하라
는 것입니다.

**올해 철강 산업의 경영환경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금년도 철강 시장은 작년보다는 좀 나은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그에 따른
세계 무역 질서의 급변 가능성, 국내 정치
사회 갈등과 안보 불안 요소 등 많은 변수
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여 갑작스럽게
시황이 돌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세상을 불확실성을 넘어
선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까지 표현합니
다. 어쨌든 우리는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
를 관통해나가야 하는 짐을 고스란히 짊
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성공적
으로 해내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거나 그
러한 역량을 갖춘 기업은 살아남을 것이
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거나 시장
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말은 경각심
을 주기 위한 단순한 쓴소리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
임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환경
을 돌파할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세아가 그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
다고 믿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
다. 60년 세월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도전
정신 그리고 세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결
기에서 저는 그 자신감의 근거를 찾습니다.
올해 우리는 기필코 양적, 질적 성장을 동
시에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공격적
경영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올
해를 지속성장의 초석이 되는 한 해로 만
들어나야 합니다.

**낙관할 수 없는 시장 상황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올해 세아인들이 주력해
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지속성장의 기치를 이어나가기 위한 2017
년의 역점 시책으로 5가지 사항을 말씀 드
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제반 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각 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세
우고 그 실천 여부를 다시 한번 확실히 청
겨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대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야 합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한
시장 상황에서는 내수시장 점유율을 더 늘
여나감과 동시에 주요 사업 분야에서 경
쟁사들의 추격을 견제해야만 합니다. 그동
안 축적해온 월등한 품질 우위와 원가 경
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우리의 텃밭인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확대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
입니다.
세 번째는 경영계획의 필달(必達)입니다.
경영계획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인식해야 합니다. 해봐서 안되면 그만인
연습이 아닙니다. 예측 못 했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쉽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대
응 조치를 통해서 어떻게든 달성할 수 있
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인재 육성 노력의 배가입니다. 시

장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업무의 질이 고
도화함에 따라 인재의 필요성이 더욱 절
실해지고 있습니다. 리더에게 중요한 것
은 인재 육성 실력입니다. 필요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당사자 스스로의 자기계
발 노력도 중요하지만 각 조직의 리더들
이 조직원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겠다
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전심을 다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
다. 우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만으
로는 아무리 잘한들 성장에 한계가 있습
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미래 성장 기반으로
확보해야 100년 세아의 위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아인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가 치른 시험의 미진함을 마
음에 새기고, 심기일전하여 해야 할 일의
실천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립니다.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국내외 경영환경 속
에서 얼마나 더 수요를 잘 예측하고 판단
하느냐가 금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
입니다. 정확하고 폭넓은 관련 정보의 수
집 분석이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
다. 지혜를 모으고 경험을 살려서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
력을 다합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
다. 자신감과 투지로 무장하고, 쇠물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힘
차게 나아갑시다. 지난해 여러분의 노고
를 다시 한번 치하 드리며 새해에 더 높은
꿈, 더 큰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 새해 아침
회장 이 순 형

이 순 형

잘 세운 계획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

계획의 기술

2017년이 시작된 지도 두 달가량의 시간이 흘렀다. 1월에 마음을 고쳐먹고 야심 차게 준비했던 신년 계획은 어느새 말 그대로 계획으로만 남아있다. 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어떻게 하면 좀더 견실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이야기해본다.



계획은 미래를 향한 이정표를 세우는 일

우왕좌왕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극작가 버나드 쇼의 자작 묘비명이다. 작가 특유의 해학과 재치가 번뜩이는 문구지만 곱씹을수록 섬뜩한 데가 있는 말이다. 과연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버나드 쇼와 같은 말을 내뱉지 않을 수 있을까? 다행히도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명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역설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우왕좌왕하지 않으면 후회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획이 필요하다.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미래라는 넓고 긴 대로에 이정표를 세워줄 계획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나 자신의 능력, 비용, 열정 등이 부족하여 계획한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실패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잘못 세운 계획은 애초에 지키기 어렵거나, 계획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고 해도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시간과 비용만 헛되이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잘못된 상황 판단을 토대로 수립된 계획, 눈앞의 문제 해결만을 나열한 계획, 적절한 시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쪽짜리 계획 역시 성공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위치를 모르고서는 어디에도 갈 수 없다. 따라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계획의 내용이 충실해지고 미래를 좀더 뚜렷하게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면밀히 관찰해봐야 한다. 일정 기간 꾸준히 자신의 실적에 대해 기록해보고, 능력과 업무 스타일, 시간 활용 방식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자신 또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 측면을 과소평가하거나, 긍정적 측면만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근거 없는 자만이나 자신감으로 크게 부풀린 계획은 그저 몽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위치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나은 방향성을 잡는 전제 조건이며, 현재의 상태를 딛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출발선이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는 식의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획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입력하기 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듯, 계획을 세울 때는 원하는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은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분명한 목적지 없이 계획을 세우면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기회인지 엉뚱한 곳으로 새는 길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또한 목표는 되도록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해야 한다. 목표가 측정 가능한 수치로 구체화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 바람이 헛된 꿈이 아닌 계획으로서 실제적인 힘을 얻는다. 가령 '날씬해지고 싶다'는 희망사항이 있다면 '체중을 감량한다'는 두리뭉실한 목표보다는 '2개월 내에 식사 조절과 운동으로 5kg을 줄인다'라고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드라인과 우선순위를 정하라

시간은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간 배분이 중요하다. 우선 목표에 대한 데드라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다음으로 미루게 되고, 결국 시간에 쫓겨 다급한 마음에 엉뚱한 사고를 치거나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기간을 정해둔 목표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능동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실천력을 높여준다. 일의 순서만 잘 잡아도 없던 시간이 생긴다. 2시간이 걸리는 일, 30분이 걸리는 일, 10분이 걸리는 일에 대한 계획을 적절히 안배하면 버려지는 조각 시간이 뭉치 시간으로 변신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하루 일과와 동선을 세밀히 고려하여 그에 맞게 시간을 배치해야 한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면 우선순위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다. 업무 성과, 가족, 개인의 꿈을 아우르는 모든 목표를 하나의 리스트로 정리하여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를 정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해 두면 서로 다른 목표가 충돌할 경우 무엇을 선택할지 빠르고 명확한 답을 구할 수 있다.

목표에 도달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목표는 항상 보여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훈이나 사훈, 학급의 급훈을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는 이유도 목표를 시각화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어떤 목표에 달성하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그 목표에 도달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아야 한다. 어떤 계획이든 시각에 호소하는 대상이 있다면 구상의 폭이 놀라울 정도로 넓어진다. 처음엔 막연했던 꿈도 마음속에 밑그림을 그려 놓고 여러 번의 스케치를 거쳐 수정하며 잘 설계된 계획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

메모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꿈을 몇 번씩 고쳐 적으며 점차 실현성이 높은 계획으로 정리해나가는 것이다. 그 메모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바로잡는다면 좀더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무슨 일인가를 도모한다. 그러나 슬프게도 처음의 분연한 결심이 어느 순간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잘 세웠다고 생각한 마음의 기둥이 힘없이 허물어지기도 한다. 어쩌면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계획을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미래를 바꿀 힘이 있다. 그리고 오늘의 올바른 계획과 실천이 내일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참고 서적 <간절한 목표가 인생을 바꾼다> 백남기, 도서출판 보는소리, 2015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그 지글러, 산수야, 2015

우리의 꿈과 희망을 말하다

2017년 세아인들의 새해 소망

올해 세운 판매 목표를
100%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아인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아 ESAB 솔루션영업1팀
황인오 팀장



2017년에는 조직문화 개선에
일조하는 실력의 세아인이 되고
싶습니다. 철강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고, 모두 열정을 가지고
파이팅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세아제강 경영관리팀 **송인한**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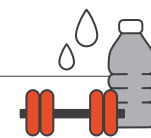
지난해 조선해운업 사태로
업무에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회복되고
성과도 많이 내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세아 M&S 영업1팀 **김혜림** 사원



올해는 모두가 평화롭고 근심 없는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2017년에는 스스로의 건강을 잘 돌보려고 합니다.
좋은 짝을 만나 결혼도 하고 싶고요.
회사의 사업계획과 정량적 목표도 달성했으면 합니다.
여러 어려움을 딛고 회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세아홀딩스 미래전략파트 **최원주** 수석



지난해 일본어 학원에 등록하고
일주일밖에 안 나갔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올해는 큰 계획보다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업무적으로도
더 실력 있는 세아인이 되고 싶습니다.

세아특수강 수출팀 **최익제** 사원

업무 외에 활동적인 취미를
갖고 싶습니다.
어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업무 역량도
높이려고 합니다. 세아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계획하신 일들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세아홀딩스 법무통상파트
이서아 사원



지난해에는 건강 관리에 좀 소홀했습니다.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돌볼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팀을 비롯해 세아네트웍스가
한층 더 비상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아네트웍스 SS팀 **이동주** 부장

신입 사원 1년차를 막 지났는데
업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싶습니다.
아직 적응하는 단계지만 영어와 엑셀, 실무 기능도 숙달하여
영업사원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아창원특수강 영업1팀 **육진수** 사원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꿈과 희망, 기대들로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세아인들은 어떤 꿈과 계획을 품고 새해를 시작했을까요? 각 계열사 구성원들의 새해 소망과 목표를 들어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책만 사두고 제대로 하지 못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세아창원특수강 영업1팀
박수빈 사원



입사한 지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 업무적으로 배우는 중이지만
올해는 실무에 투입되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세아 FS 마케팅팀 **강정호** 사원

지난해 바쁜 업무로 인해
팀원들과 친목 활동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신입 사원으로서
팀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비타민 같은 세아인이 되겠습니다.

세아 L&S 재경기획팀 **김효선** 사원

지난해 세웠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업그레이드에 대한
목표를 비롯해 건강을 위한 절주 등
뜻한 대로 이루지 못한 계획이
많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목표한 것들을 이루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을 모아 지금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갑시다.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이외관 계장

2016년을 돌이켜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이 단합된 힘을 발휘하여 웃으며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 기운을 이어가서 회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NDT 그룹의 비파괴 검사 업무 관련 국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자격증을 취득해서 더 실력 있는 세아인이 되겠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기술연구소 공정연구센터 **조기연** 주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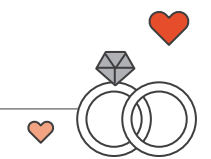


지난 한 해 생산과 원가 품질에 최선을 다한 세아 가족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목표를 달성하고 안전사고 없는 무재해 작업장을 만들어갑시다.
가장 중요한 기본은 현장 안전입니다. 저 스스로 앞장서서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조치하여 현장 요원들의 안전을 지켜가겠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제강파트 **정모** 총괄기장

영업 담당자로서 판매량 증대 및 회사 이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로 추진할 사업에서도 많은 이익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결혼 계획을 갖고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세아메탈 서울영업팀 **조민호** 대리



세아제강의 신제품을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세가
생겼으면 합니다.

세아제강 용접기술파트 **강동균** 대리





초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재도약의 시대로

2017 세아그룹 신년회의

1월 9일, 2017 세아그룹 신년회의가 개최됐다. 세아타워 4층 오디토리움에 모인 그룹 경영진들은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아의 새로운 성장사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함께했다.

신임 임원 임명 및 30년 근속 임원 포상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세아 가족 여러분 모두가 어둠을 가르고 새벽을 여는 붉은 닭처럼 각자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세아홀딩스 서영범 대표의 새해 인사로 신년회의가 시작됐다. 첫 순서로 신임 임원 인터뷰 영상이 소개됐다. 영상의 주인공인 세아제강 이현 이사, 세아베스틸 조기창 이사, 세아창원특수강 박건훈 이사, 세아 FS 이기웅 이사, 세아 E&T 한주형 이사는 입사 당시 품었던 꿈과 각오를 비롯해 현재 그들에게 세아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했다. 또한 영상에는 신임 임원들의 후배 직원들이 등장하여 애사심과 주인의식, 세아인이라는 자긍심으로 몸소 가르침을 준 임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임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

된 후, 30년 근속 임원에 대한 포상이 이어졌다. 이순형 회장은 세아 L&S 남종호 이사에게 30년 근속을 치하하는 의미로 행운의 황금 열쇠를 수여하고, 한결 같은 마음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금상 2팀, 은상 6팀 세아업적상 수상 이어져

지난해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을 포상하는 세아업적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세아업적상은 기술개발, 생산, 영업, 혁신, 특별공로 5개 부문에서 발군의 노력과 성과를 보여준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올해로 20회를 맞이한다.

2016년도에는 10개 사에서 총 19건의 공적이 제출되었으며 그중 기술개발, 생산, 영업, 혁신부문에서 금상 2팀, 은상 6팀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연주화 난강종들의 연주 공정 기술



신임 임원 인터뷰 동영상



개발을 통한 수출 향상'에 성공한 세아창원특수강의 표주영 선임연구원 외 5명, '압축기 효율 향상 및 고효율 신제품 개발'을 이끈 세아엔지니어링의 이명희 부장 외 8명이 기술개발부문 은상을 거머쥐었다. 생산부문 은상은 '제강 실수율 향상'을 일군 세아창원특수강 이응수 부장 외 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세아제강 설인수 부장 외 6명, 세아 FS 최성 과장 외 2명이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회사의 수익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영업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세아 ESAB 김남우 차장 외 4명은 다수의 카이젠 이벤트를 통해 원가 절감을 이끌어내며 혁신부문 은상을 차지했다.

세아업적상 금상 수상팀은 기술개발부문과 혁신부문에서 선정됐다. 먼저 기술개발부문에서는 새로운 산세피막방법 도입으로 품질 우위를 확보한 세아특수강 이종탁 부장 외 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혁신부문에는 포항공장 명소활동에

앞장서며 사업 경쟁력의 획기적 향상을 일궈낸 세아제강 이희대 부장 외 8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세아업적상을 수상한 총 8개 팀에는 상패와 함께 포상금이 전달됐다.

세아특수강, 세아스틸비나(SSV), 세아 M&S 세아경영상 수상

경쟁력, 미래 성장, 혁신, 인재 육성 등 총 4개 부문에서 우수한 경영 활동을 보여준 회사에 수여하는 세아경영상 시상식이 이어져 진행됐다. 2016년에는 4개 부문 중 경쟁력부문과 혁신부문에서 총 3곳의 수상 회사가 선정됐다. 먼저 경쟁력부문은 세아특수강과 세아스틸비나(SSV)가 차지했다. 세아특수강은 품질 경쟁력 확보 및 고객 밀착 관리를 통해 내수시장을 수성했고, 역대 최고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이번 경영상을 수상했다. SSV도 신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및 노후



설비 개선 등을 통해 역대 최고치의 판매량과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수상 회사로 선정됐다.

혁신부문에서는 생산성 향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이익 창출 기반을 구축한 세아 M&S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세아경영상 수상자인 세아특수강 유을봉 대표, SSV 남형근 상무, 세아 M&S 마정락 대표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순금 배지가 수여됐다.

“리더는 단지 자신의 프로필을 위한 경험의 자리가 아니라 성과를 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아특수강 유을봉 대표는 리더의 역할에 대한 말로 수상 소감을 대신하며 앞으로도 회사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SSV 남형근 상무도 ‘다년간 해외 법인에서 쌓은 경험, 겸허한 자세, 열정과 실력을 바탕으로 세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세아 M&S

마정락 대표 역시 ‘자원 개발 전문기업으로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아가 또 하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어 경영진들은 영상을 통해 지난해 실적을 되돌아보고 올해의 경영환경과 계획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역성장의 고리 끊고 반등하는 한 해로

“누군가는 지금의 세상을 불확실성을 넘어선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관통해나가야 하는 짐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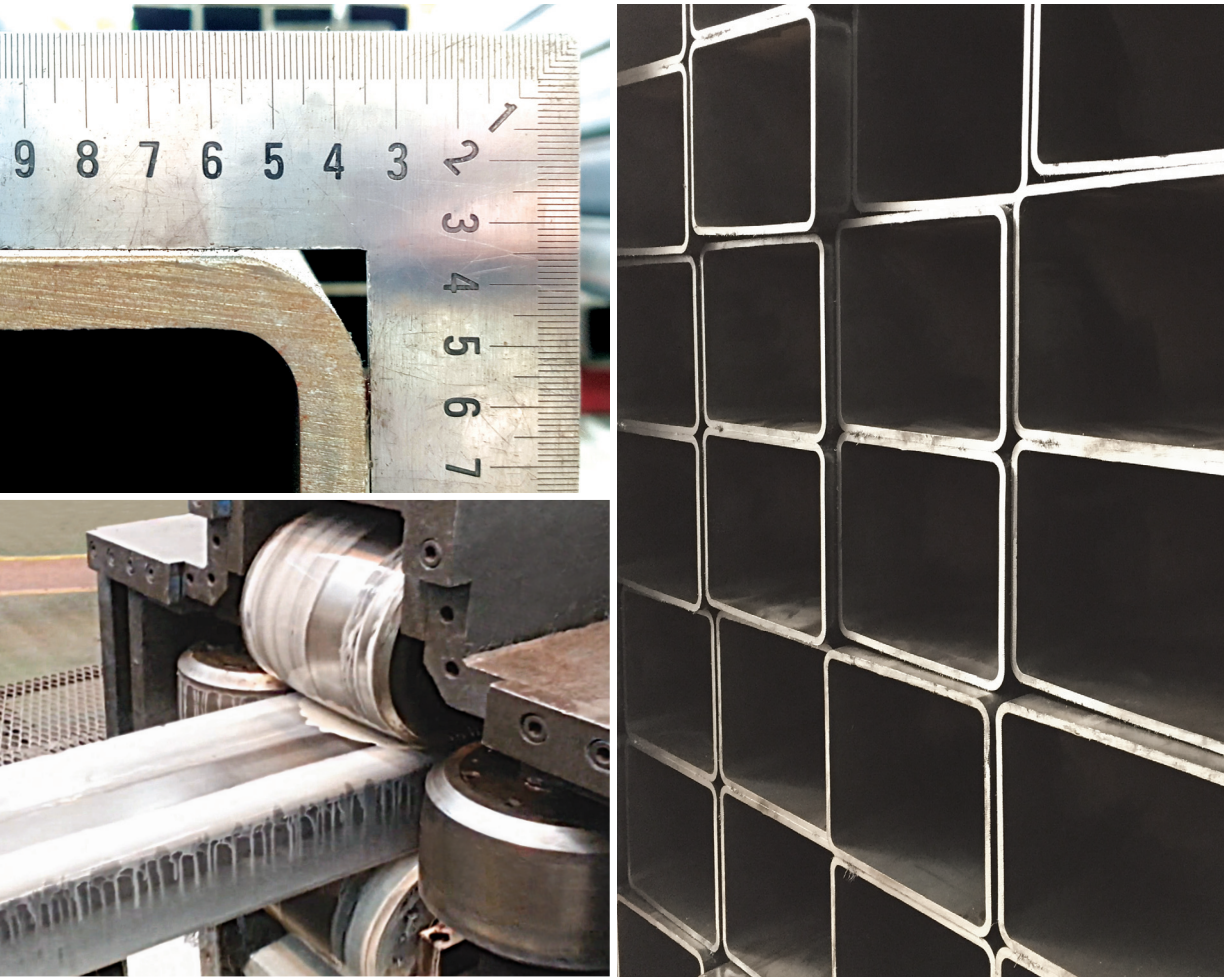
이날 이순형 회장은 강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새로운 환경을 돌파할 역량을 갖추고 한 차원 높은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도전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순형 회장은 역성장의 고리를 끊고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공격적 경영을 강조하며 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제반 계획의 철저한 이행, 적극적인 내수시장과 해외시장 확대, 경영계획의 필달, 인재 육성, 신성장 동력 발굴 등 5가지 사항을 올해의 역점 시책으로 꼽았다.

마지막 순서로 세아인들의 새해 목표와 소망을 유쾌하게 담은 영상이 소개됐다. 영상은 세아인들의 핵심가치 캐릭터인 세론이가 각 사업장의 직원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영상 속 세아인들은 가족계획, 자기계발과 같은 개인적인 소망 외에도 철강 경기의 회복, 무재해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을 헤쳐나가자는 다짐과 희망을 전했다.

이날 신년회의를 마친 경영진들은 세아가 페로 이동하여 오찬식을 가졌다. 경영진들은 ‘기업의 힘이 국력’, ‘세아 100년’을 함께 외치며 2017년을 기필코 재도약의 시대로 만들겠다는 뜻을 함께했다.





내진용 강재 시장 선도해 나갈 것

세아제강, 고강도 내진 강재 KS인증 취득

국내에서도 잇달아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내진 강재 사용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진 강재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세아제강은 최고 강도의 SKK590 제품으로 KS인증을 취득하며 기술력과 시장 대응 능력을 확보했다.

잇단 지진에 내진 강재 수요 늘어

지난해 역대 최고의 강진이 경북 경주에서 발생하며 국내에서도 내진 설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진 구조는 지진 발생 시 건물의 좌우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가로축을 강화하는 것과 건물 붕괴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핵심. 이를 위해서는 건물 기초용으로 사용되는 기초용 말뚝부터 건물의 기둥에 사용되는 강재까지 내진성을 확보해야 지진 발생 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지진 빈도와 강도가 강해지는 추세에 맞춰 콘크리트 파일과 H빔 등이 주로 사용되는 국내 건축구조용 강재 분야에서도 내지진 강관류에 대한 시장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력 확보 통해
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

내진 강재 수요 증가에 대해 세아제강은 타사보다 한발 빠르게 대응해왔다. 2000년에 이미 내지진 강재를 사용한 ‘건축구조용 탄소 강관’과 ‘내진 건축 구조용 각형 강관’의 생산 체계를 갖췄다. 2012년과 2013년에는 내진용 강재의 사용 기준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에서 ‘건축구조용 냉간 ROLL 성형 각형 강관’과 ‘기초 말뚝용 고장력 강관’에 대한 일본건축센터 인증을 잇달아 취득할 만큼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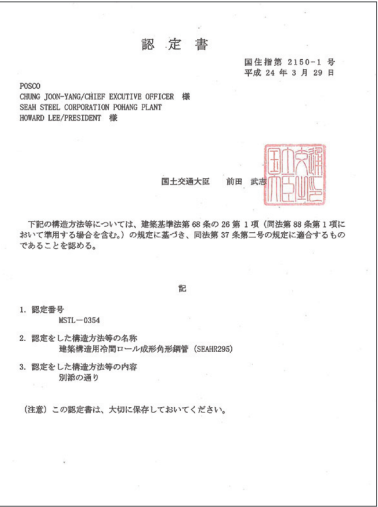
“강재에 외부 힘이 가해졌을 때 툭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휘 수 있도록 물성에 변

화를 줘야 내진용 강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진 강재는 지진 발생 시 붕괴에 대한 저항 능력을 높이기 위해 원재료부터 관리 기준까지 일반 강재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세아제강 담당자의 설명. 특히 평탄도, 직각도 등 치수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정교한 교정 공정은 세아제강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담당자는 ‘세아제강은 국내 강관 업계의 리더로서 양질의 내진용 강관 제품을 생산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기술집약적 제품일수록 세아제강이 보유한 노하우와 기술력이 시장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품군 확대를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

지난해 세아제강은 기초용 말뚝 중에서도 최고 강도 제품인 SKK590 제품(인장강도 590MPa 이상)에 대한 KS인증을 취득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시장 대응 능력을 확보한 상태이다. 내진용 강관 부문에서도 기초용 말뚝부터 건축구조용 강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국내 내진 설계에 대한 법규 강화와 함께 내진 강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세아제강의 내진 강재에 대한 상담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 세아제강은 향후 후속 및 대형 내진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건축센터 인증서(BCR)

57년 성장의 기틀을 세우다

세아제강 포항공장 및 기술연구소 설립

포항공장 건설과 국내 강관업계 최초의 기술연구소 설립을 통해 세아는 세계적인 철강전문 회사의 포석을 세웠다. 새로운 성장의 토대를 구축했던 세아의 그 시절을 구길신 前 세아제강 포항공장 공장장의 이야기를 통해 소환해본다.



포항 제1공장 건설 현장(1977년)

포항공장 건설은 많은 자본이 들어간 사업이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 건설, 처음 만져보는 설비, 생소한 기술의 습득 등 날마다 고전을 거듭했지요.

그래도 당시 임직원들은 제때 준공하겠다는 열의로 모두가 의기투합했습니다.

적기에 공장을 짓고 정상 가동하면 회사가 크게 일어설 수 있겠다는 확신과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구길신 前 세아제강 포항공장 공장장

높지 위에 강관으로 지은 포항 제1공장

1973년까지 서울공장 생산 설비를 순차적으로 늘리며 강관업계 선두주자의 위치를 굳힌 후에도 부산파이프(現 세아제강)는 여전히 생산 능력 증대에 대한 갈증이 남아있었다. 1차 석유파동 이후 석유개발 붐이 일며 고품질 강관 수요가 증가했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부산파이프는 포항시 장흥동 소재의 6만 3,00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포항공장 건설 계획을 추진하여 1975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포항공장 건설공사에서 가장 큰 고충은 다리가 폭폭 빠지는 늪지대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지반을 다지는 작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공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어야 하는 과제도 주어졌다. 부산파이프는 강관을 활용하여 공장 구조물을 지음

으로써 비용을 절감했다. 육중한 철자재를 다루는 강관공장은 철골 구조물로 지어야 한다는 통념을 깬 유일한 사례였다. 포항 제1공장의 가장 큰 특징은 고품질 강관을 생산할 수 있는 독일의 최신 설비, SRM을 설치한 것이다. 국내 강관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설비였다. 기술집약적인 이 설비를 통해 부산파이프는 강관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API 강관을 만들 수 있었다. 저렴한 투자비와 높은 생산성, 원가 절감 효과가 더해져 부산파이프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좋은 품질의 강관을 저렴하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1978년 10월 19일, 창립 18주년을 기해 준공식을 가졌다. 3년 4개월 만에 준공된 포항공장 준공식은 상공부 장관과 국내외 거佬처 대표, 부산파이프 임직원 및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1973년 세아제강 생산부서에 입사하여 약 20년간 세아에 재직했다. 1989년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했으며 포항공장 공장장을 역임했다. 현재 부철동우회 일원으로 활동 중이다.



포항 제1공장 준공식(1978년)



포항 제2공장 가동식(1980년) / 소구경 강관 제품



포항 제3공장 내부(1983년)



기술연구소 출범(1987년)



부산파이프가 획득한 각종 인증서

자체 기술로 설비 제작한 제2공장

포항 제1공장 건설 공사가 궤도에 오르자 부산파이프는 이전부터 추진해온 포항 제2공장의 건설 계획을 실행에 옮겨, 공사 착수 3년만인 1980년 8월 2일 생산을 시작했다. 제2공장은 연 1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전선관 전용 라인과 연속도금 라인, 구조관 라인 등 연 5만 8,0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었다. 특히 제2공장의 설비들은 일부 이설된 설비를 제외하고 최신 설비를 도입하거나 자체 기술로 제작되어 기술적 성취도를 높였다.

제2공장 가동으로 부산파이프는 생산 관종의 집중화와 일관 공정을 통해 생산성 증대와 원가 절감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고급 관종인 UL6, ANSI C80 전선관 등을 생산함으로써 기술력을 축적했으며,

포항 제1, 2공장 가동으로 부산파이프는 세계적인 강관 메이커로 성장하는 원동력을 얻게 됐다.

종합 강관 제조 기업의 입지 구축

부산파이프는 서울공장에 있던 중구경 강관 생산 설비를 포항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1981년 4월 제3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1983년 1월 25일, 제3공장의 상업 생산을 시작으로 부산파이프는 송유·유정용 강관, 가스관 등 고급 중구경 강관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며 총 72만 톤의 각종 강관류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강관 제조업체로서 지위를 다졌다.

1987년 5월에는 제4공장이 준공됐다. 부산파이프는 그간 서울공장에서 생산해온 스파이럴 강관의 제조 설비를 설치하고

1990년 6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스파이럴 강관은 그 안에서 어른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대구경 제품으로, 부산파이프는 연 4만 톤 규모의 스파이럴 강관 생산 능력을 갖추면서 더욱 다양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1990년 3월에는 新도금 공장인 제5공장을 준공하며 연 13만 6,000톤 이상의 아연도금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1990년 1월에는 고급 대구경 강관의 국산화를 위하여 LD(Large Diameter) Max 80인치 설비 공장을 착공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12m 플레이트(Plate)를 벤딩할 수 있는 최신 설비를 도입했다. 부산파이프는 LD공장의 가동으로 한국가스공사에 배관용 가스관을 납품하고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하는 등 대구경

강관 판매를 통하여 연평균 200억 원의 매출 증대를 기할 수 있게 됐다.

연구 개발의 산실, 기술연구소 설립

강관 수요의 증가와 고급화 추세에 따라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선도할 연구개발 조직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1977년 5월 서울공장에서 연구개발부가 발족됐다. 연구개발부는 1978년 3월, 연구개발실로 확대 개편을 거쳐 포항으로 이전하여 1987년 1월 1일 기술연구소로 정식 출범했다. 1989년 2월 구길신 전 무가 기술연구소 2대 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파이프가 국내 강관업계에서 유일하게 설립한 기술연구소는 외국 지식을 습득하고 시험하여 그 결과를 현장에 반영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새로운 설비를

들여와야 할 때는 각국 설비의 특징 비교, 설비 도입 유효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연구진의 부단한 노력으로 신제품 개발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도 큰 진전을 가져왔다. 기술연구소는 각종 생산 제품에 대해 국내 기관으로부터 품질을 공인받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KS, ASTM, API, JIS 등 다양한 국제 표시허가 인증 획득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다함으로써 부산파이프의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크게 기여했다.

수상 실적 통해 포항공장 자긍심 높여

포항공장은 한국능률협회가 제정한 '96 경영혁신 대상' 수상을 비롯해 다양한 수상 실적을 쌓으며 대외 신뢰도를 높였다. 1997년에는 제1회 '포항 상공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포항 지역 상공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및 경영자를 표창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공장은 신기록 도전 등 경영 개선 활동을 통해 수출 증대 및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1999년 11월에는 제1회 대한민국 우수 공장 인증식에서 철강업체로는 유일하게 우수 공장 인증을 획득하여 포항공장의 자긍심을 높였다.

1998년 10월 19일, 포항공장 가동 20주년을 기념하여 정문 앞 국기 게양대 좌측에 타임캡슐이 설치됐다. 이 타임캡슐은 1978년 가동 이후의 역사와 당시의 설비 능력, 생산 활동 현황, 향후 20년을 맞이하는 사원 개개인의 각오 등을 담았다. 타임캡슐은 공장 가동 40주년이 되는 2018년에 공개된다.



성장의 한계 넘어서는 또 한걸음의 도전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 마케팅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동남아시아의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나라, 인도네시아.

이곳에서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이하 인니세아)는 불편한 사업 환경과 치열한 경쟁 상황을 극복하며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글 인니세아 마케팅팀 문병술 법인장

직원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

자카르타 동남쪽 40km. 여기는 짜카랑(Cikarang)이라는 작은 도시에 자리한 인니세아입니다. 2008년 법인 설립 이후 인니세아는 냉장고 부품 가공에 전념하고 있으며, 냉매를 순환시키는 Cycle 부품이 주요 생산 품목입니다. 고객사인 하이얼이 1Km 이내, 샤프와 도요타 등이 속해 있는 까라왕공단과 30km 거리에 위치한 인니세아의 입지는 가전과 자동차 가공 사업을 영위하기에 최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현재 인니세아에는 186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답게 전 직원 중 2명의 한국인과 3명의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이슬람 신자입니다. 마케팅팀은 냉장고 제조 기업을 상대로 부품 개발을 위한 프로모션 및 고객 의견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팀 구성원은 팀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이며, 이 중 여성 직원 2명은 구매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및 시스템 미흡으로 불편한 사업 환경

5%가 채 되지 않는 화교가 인도네시아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화교들은 한자를 쓰거나 읽지도 못하는 수준까지 현지화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급진 이슬람 단체의 영향력이 강해지며 화교 탄압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만 3,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인구의 64%가 자카르타가 위치해 있는 자바 섬에 살고 있으며, 산업 인프라를 포함하여 경제력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어 이에 따른 폐해가 극심합니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도로 및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먼 지역에 위치한 고객사에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80km 거리의 고객사에 납품하는 데 4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투명하지 않은 공공 시스템, 지역 간 이기주의 등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공서 일 처리도 시스템화되지 않아 지역별로 비용이나 시간이 다르기 일췌인 불편한 사업 환경이지만, 세아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전개

작년 8월까지 인도네시아 내의 중국계 냉장고 제조기업들이 모 든 일본계 가전 기업을 인수 완료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위탁 생산 업체인 샤프가 애플의 하청업체인 홍하이에, 산요는 하이얼, 도시바는 메이디에 인수됐습니다. 특히 최대 고객인 샤프의 중국 산 튜브 사용으로 시장 수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이에 마케팅팀은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고객과 신제품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스틸 위주의 제품 구성을 탈피해 동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을 강화하여 올해 관련 제 품의 매출 비중을 3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는 주요 부품사 등을 상대로 자동차 가공을 위한 프로모션도 진 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아의 자동차 사업 부문 소개 및 진입 방안 협의를 통해 기본 인프라 및 시스템, 고객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내년 이 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책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 도래해

인도네시아는 원유, 철광석, 석탄, 목재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 라지만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습니 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 투자절차 간소 화 등의 정책 개선을 통하여 전년 기준으로 세계 3위에 이르는 해 외 투자를 유치했으며 재정 확보를 위해 과감한 조세감면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미 트럼프대통령의 TPP 파기정책으 로 베트남을 향한 해외 투자가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효과도 기 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장기화로 인해 위탁생산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월등 한 중국산 원자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품질 면에서 상대우 위에 있는 세아 제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인도네시아 내 철강 산업 육 성을 위한 수입량 할당제 도입 역시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되고 있 습니다.

세아만의 강점 발휘하며 대약진 할 것

풍부한 가공 경험과 원재료부터 가공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능 력은 다른 경쟁사들이 갖추지 못한 세아만의 경쟁력입니다. 또한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선 시 분야별 본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점도 세아만의 강점입니다.

저희 마케팅팀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업무 처리를 최고의 덕목으 로 강조하며 성실한 자세로 고객을 대하고 있습니다. 주간회의 시 에도 윤리 경영에 대한 이슈 및 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있으며 그 룹 경영이념 및 핵심가치, 인재상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 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니세아는 처음으로 매출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자동차 가공 부문에 진입하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예정이 며 2022년까지 200억 매출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어렵지만 세아의 저력을 발휘하여 대약진의 계기를 만 들어가겠습니다.

인니세아 마케팅팀



2008년 11월부터 인니세아에서 근무하고 있습 니다. 탁구가 취미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속 적인 노력'이 인생 모토입니다. 세아 특유의 문 화인 친절함을 나누며, 제품 판매 및 마케팅 분 야에서 제 능력을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 마케팅팀 매니저 & 공장 총괄 **Ahmad Subhan**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니세아의 일원인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처음엔 저녁 식 사 중 술을 마시는 한국 문화가 낯설었지만 8년 째 근무하면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감성적이 고 생각이 많은 편이지만 운동을 좋아합니다. 좌 우명은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자'입니다.

- 마케팅팀 & QC 매니저 **Insani Kadir**



인니세아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긍정 적인 성격으로 항상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요리와 노래 부르기 입니다. 다소 직설적으로 말하는 한국 문화는 여 전히 익숙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열정을 갖고 업 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마케팅팀 & 구매팀 사원 **Herawati**



현재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니세 아에서 근무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활동적인 성격과 수마트라인 고유의 성실한 자세로 제가 담당하는 분야에서 더 해박 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케팅팀 사원 **Radiaz Silvan Rinald**



독서와 노래 부르는 것이 취미이며 좌우명은 '절 대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세아의 인도네시아 진 출 초기부터 근무해왔는데, 인니세아가 시장 내 주력 기업이 될 때까지 제 몫을 다하며 팀원들 과 협력하겠습니다.

- 마케팅팀 & 구매팀 사원 **Nelvi Rawati**



축구가 취미인 2년차 세아인입니다. 좌우명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입니다. 아직 한국 문화가 낯설지만 열정의 세아인으로서 인니세아의 발 전에 기여하여 2017년 새로운 시장 확대에 앞 장서겠습니다.

- 마케팅팀 사원 **Abdul Gofur**



일상의 혁신으로 습관을 바꾸다 세아 ESAB CBS 내재화 TF 프로젝트팀

지난해 세아 ESAB은 무려 24개의 카이젠(Kaizen) 이벤트를 실행하며 CBS를 전사적 경영혁신의 기반으로 구축했다.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세아업적상 수상의 영광까지 품에 안은 5명의 세아인을 만나고 왔다.

세아 ESAB 임직원 모두가 수상자

세아인들에게 개선을 의미하는 카이젠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표준작업 카이젠 이벤트를 비롯해 CBS 벤치마크 컨퍼런스 등 주요 카이젠 활동이 사보를 통해 이미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난해 세아 ESAB에서 실시한 카이젠 이벤트는 무려 24개. 공장의 낭비를 없애고 줄이는 노력은 그야말로 일년 내내 줄기차게 이어졌다. CBS추진팀의 김남우 차장, 생산부문을 총괄하는 조인호 그룹장, 경영관리팀 김재현 팀장, 품질관리팀 조정제 팀장, 마케팅기획팀의 장영원 팀장은 지난해 카이젠 활동 주도를 통해 원가 절감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

정받아 올해 신년회의에서 세아업적상 혁신부문 은상을 받았다. “사실 세아 ESAB 임직원 전원이 카이젠 팀원입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카이젠 활동에 참여했고, 그중 참여도가 높은 몇 명이 대표로 수상했을 뿐이죠.” CBS추진팀의 김남우 차장이 겸손한 수상 소감을 통해 ‘세아 ESAB 임직원 모두가 수상자’임을 강조한다. 조정제 팀장도 ‘그저 열심히 카이젠 이벤트에 참여했을 뿐인데, 큰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다. 5명 모두에게 세아업적상 수상은 결코 개인의 영광이 아니다. 세아 ESAB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이고, 함께 누려 마땅한 기쁨이다.



카이젠은 알고 보면 사람을 위한 혁신

생산 부문과 사무 부문에서 매달 각 1개, 총 2개의 CBS 이벤트가 전개됐다. 성형 공정에서는 1명이 3개의 설비를 담당하던 체제를 4개의 설비를 담당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권취 및 포장 공정의 생산성과 정비율 향상, 검사 시험비와 국내 운반비 절감, 각종 리드타임 단축 등이 추진됐다. 이 같은 일련의 이벤트들을 통해 연간 8억 5천여 만원이 절감되는 체제가 구축됐다.

제품 포장에 붙이는 라벨의 위치를 바꾸는 일, 설비의 위치를 옮기고 시스템상에 중복되거나 누락된 제품 품번을 바로잡는 등 작은 아이디어와 세심한 관찰이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내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튼튼한 조직을 만드는 것. 좀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체득하여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CBS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김재현 팀장은 이렇게 말하며 ‘원가 절감은 자연스레 따라온 성과’라고 덧붙인다.

“카이젠은 베스트(Best)가 아니라 베테(Better)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업자 스스로 일하는 환경을 바꾸는 혁신 활동이죠.”

김남우 차장이 카이젠의 의미를 이렇게 전한다.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업무를 기계가 대신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동작이나 작업 동선을 최소화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 등 카이젠 활동은 알고 보면 ‘사람을 위한 혁신’이라고 그는 말한다.

사무 부문에서도 표준화를 통해 업무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었다. 고객의 수요와 재고를 정확히 파악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효율적인 판매 관리가 가능해졌다. 제품의 기획에서 실제로 제품화되기까지의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더욱 신속하게 납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익숙한 일상을 혁신의 일상으로

물론 바쁜 업무 시간을 내어 카이젠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4~5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카이젠 이벤트는 여러모로 고단한 작업이다. 여러 부서에서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리포트

까지 작성하려면 야근이나 철야도 불사해야 한다. 업무와 병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주변 동료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5명의 수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올해도 다양한 카이젠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카이젠이 회사의 체질을 튼튼하게 바꾸는 방법이자 시장을 선도하고 승리하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익숙한 것을 바꾸려고 하면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하지만 카이젠을 통해 좀더 장기적인 이익을 생각하게 되고, 개선 전후의 달라진 효과를 서서히 실감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카이젠은 세아 ESAB 임직원 사이에서 일상이 됐다. 장영원 팀장의 증언에 따르면, 업무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거 카이젠 해야겠다’는 말이 농담처럼 나올 정도라고. 문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당면 과제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자리잡은 것이다. 카이젠 성공 사례를 스스로 체험하며 ‘하면 된다’는 도전정신과 항상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문제 의식도 갖게 됐다.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 부서나 업무 영역의 구분 없이 협업과 소통을 하게 된 점도 CBS가 가져온 값진 성과다.

한길 한마음 정신으로 2017년을 도약의 해로

“집념의 사나이가 되고 싶습니다.” 올해의 목표와 세아인으로서의 다짐을 묻자 조정제 팀장이 이렇게 답한다.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동료들과 대동단결하여 세아 ESAB의 하나된 힘을 보여주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분연한 의지를 보인다. 조인호 그룹장의 각오 역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맡은 일을 잘 해내는 사람,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전하는 장영원 팀장과 김남우 차장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김재현 팀장이 세아인들을 위한 당부의 한마디를 덧붙인다. “지난해는 철강 경기의 부침으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길 한가족 정신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도약의 해를 만듭시다.”



당신이 있어 지금의 세아가 있습니다

신임 임원들과의 만남

임원이라는 직함은 모든 직장인들의 꿈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2017년 신임 임원으로 취임한 5명의 세아인을 만나
승진 소감과 임원으로서 새롭게 세운 다짐을 들어본다.



세아 FS 이기웅 이사



세아제강 이현 이사



세아 E&T 한주형 이사



세아베스틸 조기창 이사



세아창원특수강 박건훈 이사

임원으로 승진한 소감이나 감회는?

세아제강 이현 이사(이하 이현) 1990년 8월에 입사하여 벌써 세아인 316개월차네요. 임원 승진 소식에 굉장히 기뻐했지만 동시에 얼떨떨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 두려움 반 설렘 반, 복잡 미묘한 기분입니다.

세아베스틸 조기창 이사(이하 조기창) 직장인의 꿈인 임원이 되어 기쁘기 그지없지만 경기가 많이 침체된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회사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아창원특수강 박건훈 이사(이하 박건훈)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과를 내기 위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앞으로는 옆도 돌아보고 후배들을 챙겨주는 여유를 지닌 임원이 되겠습니다.

세아 FS 이기웅 이사(이하 이기웅) 만 25년이 넘게 세아인으로 살아왔는데 임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가벼운 자리가 아닌 만큼 좋은 임원이 되기 위해 이제껏 본보기가 되어주신 선배들을 따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아 E&T 한주형 이사(이하 한주형) 승진 소식을 듣고 여러 동료, 선후배들과 함께 땀 흘려온 27년이란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더욱 정진하는 임원이 되겠습니다.

세아에 근무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이현 입사 후, 첫 업무가 거제도 지역 조선소를 담당하는 영업 업무였습니다. 당시 타사 제품, 수입 제품을 사용하던 조선소에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무척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조기창 2009년에 소형압연공장 생산량을 79만 톤에서 96만 톤까지 증대시키며 세아업적상도 받았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비를 개선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 ‘역시 열심히 일하면 회사가 알아주는구나’라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죠.

박건훈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가열로 2기를 설치하는 셋다운 작업을 할 때였습니다. 회사의 사활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약 40여 일을 회사에서 먹고 자면서 생활했죠. 집이 10분 거리에 있고, 아이가 4살 무렵이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세아창원특수강도 1월부터 셋다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소형압연공장의 압연기를 전부 교체하는 힘든 작업입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사전 검토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웅 최근 세아 FS는 전표 전산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세아 FS는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있어 전표 관리에 어려움이 컸는데, 이번 전산화 작업을 통해 전표의 수기 발행을

전면적으로 없애고 보다 혁신적인 사무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데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주형 1997년, 세아 E&T에 발령을 받았던 당시 세아 E&T는 외형적으로 100억 미만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우리 회사를 1,000억 원대 규모의 회사로 성장시키겠다는 마음속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2012년도에 그 목표와 꿈이 실현됐습니다. 모두가 합심해서 이룬 성과였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분할하며 다시 규모가 축소됐는데요. 다시 한번 1,000억 이상의 회사로, 튼튼한 재무 기반을 갖춘 회사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임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현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재 양성입니다. 회사가 꿈없이 발전하려면 좋은 후배들이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리더의 역할 아닐까요?

조기창 나보다는 우리 함께 잘되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간에는 칭찬에 다소 인색하고 질책만 앞섰던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 같은 임원으로서 때로는 엄하게 질책하고

잘했을 때는 따뜻하게 안아주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박건훈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커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 성과를 낼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웅 기본적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희생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적으로는 시장과 고객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는 사람을 생각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임원이 되려고 합니다.

한주형 27년간 세아인으로 살아오면서 지켜온 원칙은 ‘정직하게 살자’입니다. 앞으로도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세아인, 그리고 그런 임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변화와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세아는 000 이다’라고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이현 세아는 제게 로또입니다. 인생을 바꿔준 예상치 못한 행운이죠. 대학 졸업 후 유학 준비를 하던 중에 우연한 계기로 입사하게 됐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정말 근사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

게 됐거든요.

조기창 세아는 자부심입니다. 회사의 성장과 함께 제 인생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우리 회사만큼 정직하고 도전적인 회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라도 자랑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박건훈 세아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회사가 법정 관리를 받던 기아특수강 시절, 좀처럼 비전이 보이지 않아 회의를 느꼈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대리인으로 오신 이승휘 부회장이 보여준 청사진과 직원을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대해주는 세아의 문화를 경험하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여기라면 평생 함께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해준 그때의 세아가 있었기에 현재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웅 세아는 스마트폰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뗄 수 없는 물건이고 꿈을 실현해주는 도구인 스마트폰처럼 세아는 제 꿈을 실현해줬고,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주형 저에게 세아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버릴 수 없잖아요. 항상 세아와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세아의 승리를 위한 파트너 주식회사 세원



국내에서 무게목 강관을 생산하는 업체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유일하다.

공장 내 상주 협력회사로서 세아창원특수강의 무게목 강관 생산의 후공정 작업을 담당하는 세원의 책임감과 자부심도 그래서 더 남다르다.

세아의 발전을 뜻하는 이름, 세원

“세원의 상호에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경쟁력을 갖춘 영속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생산 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상호를 짓기 위해 작명소까지 다녀왔다는 이민우 대표. 그는 작명소에서 지어준 이름을 마다하고 ‘세아’와 승리를 의미하는 ‘원(Win)’에서 회사의 이름을 가져왔다. 이름에서부터 세아창원특수강의 성장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고객과 나 자신 그리고 회사라는 ‘세 개의 주체가 모두 승리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직원 각자와 회사가 발전하여 안정된 일터를 만들어보자는 의미이다.

세아창원특수강이 세아의 가족으로 새롭게 출범한 2015년. 세원의 새로운 역사도 시작됐다. 이민우 대표는 특수강 사업장에서 27년간 쌓은 노하우, 인사노무 및 6시그마, PI(Process Innovation) 등 전사적 품질과 프로세스 혁신 업무를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다.

설비, 소재, 사람이 조화로운 일터

이민우 대표와 김상철 부장을 비롯해 3명의 교정 공정 주임, 1명의 연마 공정 주임 등 세원의 임직원은 총 49명. 주임 중심의 조단위로 나뉘어 무게목 강관의 교정, 절단, 연마 등의 공정에서 3교대로 근무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무게목 강관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 그렇기에 이들의 자부심과 책임감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세원에서는 생산 목표 달성, 품질 및 원가 경쟁력 확보, 납기 준수, 무재해를 추구한다. 최고의 제품과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무엇 하

나 간과할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민우 대표는 3M(Machine, Material, Man)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일터를 강조한다. 설비가 잘 돌아가도록 제대로 관리하는 일, 작업할 소재의 물량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 원활한 생산을 위해 월간/주간별 인력 가동 계획을 세우는 일 등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인다.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공정 전후로 제품의 규격이 올바른지, 불량은 없는지, 고객이 원하는 사양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체크 시트를 통해 일일이 확인하며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보호구와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다. 이 밖에도 세원에서는 10대 안전 수칙을 정해 잠재 위험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직원들의 마음에 안전의 중요성을 새길 수 있도록 안전 교육도 수시로 실시한다. 이런 노력 덕분에일까? 세원은 설립 후 지금까지 무재해, 무사고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5월에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320일 무재해 달성 기념패도 받았다.





최상의 조업 기술 향한 부단한 노력

세원의 회사 벽면 게시판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그날그날의 공정별 생산 실적과 재공량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추가 소재가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세원의 '눈에 보이는 경영'이다. 이외에도 세원은 청소, 정리 정돈, 작업표준 준수 등을 중시하는 한편 Rule과 Role에 따른 근무 활동을 통해 직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소통과 화합도 중요하다. 오래 근무한 베테랑 직원과 갓 입사한 젊은 직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일하다 보니 아무래도 세대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각 조마다 조직 활성화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직원을 중심으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우수 사원 및 주임 단위 포상 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가 하면, 창립기념일에는 올해의 세원상, 창의상, 귀요미상 등을 통해 행복한 직장,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다.

작업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 세원에서는 실력과 경험을 갖춘 선배 사원이 지도 강사가 되어 집중적인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며, 이론-실습-심화의 3단계 업무 트레이닝을 통해 직원들은 최상의 조업 기술을 갖추게 된다.

가까이, 자주, 함께 소통하는 사이

“공장 내 가까운 곳에서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작업 지시, 소재/자재 조달, 기술 지도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 내 상주 협력사의 장점을 묻자 이 대표는 이렇게 답한다. 문제 발생 시 관계자가 모여 즉시 협의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 이외에도 세아창원특수강과 세원은 매주 월요일 생산회의와 수요일 품질회의 시간을 갖고 있다. 매주 금요일에는 세아창원특수강 강관팀장 주재로 공장 최적화 및 이슈 사항에 대한 회의도 진행한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켜본 세아창원특수강은 세원 임직원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회의 시간을 비롯해 평소 마주치는 매 순간,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세아창원특수강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생산 목표를 달성했을 때나 품질 테스트 성공 후, 수고했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세아창원특수강 임직원들을 보며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늘 역동적으로 일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세아창원특수강의 모습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운다고 세원의 임직원들은 입을 모은다.

“세아창원특수강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신규 투자한 공장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시장 개척을 해나가면 향후



글로벌 No.1 회사로 우뚝 올라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

다. 또한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세아 가족의 희망이라고 봅니다.”

이 대표도 이렇게 말하며 협력사를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세아창원특수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신 공장 정상화에 힘 모을 것

세아창원특수강은 지난해 대구경 무계목 강관공장을 착공했다.

세원은 해당 공장의 외면 연마, 내면 연마, 양단 가공을 맡게 되어 현재 설비 시운전과 동시에 업무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공정과 유사한 작업이지만 새로운 설비에 맞춰 좀더 역량을 올리기 위함이다.

“앞으로도 세원은 세아의 곁에서 제 역할을 다하며 철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새해 복 듬뿍 받으시고, 늘 웃음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세아 가족들에게 신년 인사를 전하는 이민우 대표. 대구경 공장 정상화와 신제품 품질 확보,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노라고 세원 임직원들은 오늘도 새롭게 각오를 다진다.





사랑을 그리고 행복을 채색하다

문자도 체험

추위가 한풀 꺾인 일요일 오전. 묵향이 감도는 작은 화실 안으로 세아제강 구매2팀의 문성식 과장 가족이 들어선다. 복을 부르는 그림과 글, 문자도를 체험하기 위해서다.

세아제강 구매2팀 문성식 과장 가족



16년차 원앙 부부와 사랑스러운 두 아이
차분한 묵의 향기에 시끄러운 생각과 어지러운 마음이 덩달아 고요해진다. 이날 체험에 참가한 문성식 과장의 가족은 아내 조종연 씨와 딸 희승 양, 막내 희우 군까지 네 식구.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이다. 무엇보다 ‘아내 바라기’ 문 과장의 한결 같은 애정 덕분에 결혼 16년차 부부의 금슬이 신혼부부 못지않다. 대학시절 처음 만나 종연 씨에게 한눈에 반한 문성식 과장이 5년 동안이나 구애한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고 한다. 큰딸 희승이는 올해 열다섯 살. 웃을 때 폭 파이는 보조개가 유난히 예쁘다. 한참 반항할 나이지만, 부모님 말씀을 공경하는 착하고 예쁜 공주님이다. 희우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닌 열세 살 소년. 귀여운 춤으로 가족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애교 만점 막내이자 누나가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나서는 껌 딱지 동생이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그림, 문자도
민화는 본래 궁중 문화에서 시작되어 양반사회를 거쳐 민중에게까지 퍼져나간 회화라고 한다. 궁정화가들이 엄격한 화법에 따라 그리던 그림과 달리 민간 화가들의 자유로운 개성이 담겨 있다. 그중에서도 문자도는 글과 그림이 합쳐진 민화의 일종. 효제(孝悌) 문자도라 하여 양반사회에서 유교의 덕목을 교육시키는 목적으로 그려지다가, 서민층에 의해 건강과 화목 등 복을 비는 수복(壽福) 문자도로 변화했다. 문자도에는 채색 전용 화선지인 장지를 사용한다. 특히 이날 체험에서는 장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이합 장지가 준비됐다. 이합 장지는 2장의 장지가 합쳐진 종이로, 그 위에 60번 정도까지 덧칠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다. 채색에 사용되는 물감도 조금 특별하다. 주로 조개나 암석 등 자연에서 채취한 동양화 물감의 색은 여러 색을 섞어도 탁해지지 않는다.

알아서 척척, 밝고 착한 희승이와 희우

요즘 희승이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에 푹 빠져있다. 남자친구 이상형을 묻자 ‘방탄소년단의 김태형’이라는 대답이 나오기까지 1초의 주저함도 없다. 희우는 축구와 스마트폰 게임에 관심이 많다. 어려서부터 태권도 학원에 다녀서 지금은 두 아이 모두 3품, 검은 띠 보유자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고, 맡은 일에 책임감도 강한 아이들이다.

“창원공장 품질경영팀에 근무하다가 2015년에 서울로 발령을 받았어요. 가족 전체가 이사를 하며 아이들도 전학했죠.”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 못 하면 어쩌나, 혹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업이 뒤쳐지지는 않을까 문 과장과 종연 씨는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기우였다. 이듬해 희우는 학급 회장에 당선됐다. 희승이도 많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다. 대견한 아이들의 모습에 부부는 안도했다. 화려한 기교 없이도 정겨운 풍경을 담아내는 그림처럼, 세상 어느 곳에도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아이들의 솔직함과 천진난만함이 그저 어여쁘고 고마웠다.



매일 밤 굿 나잇 뽀뽀를 나눠요

이날 문성식 과장은 복(福)이 쓰여진 문자도 도안을 골랐다. 종연 씨는 한자 애(愛)를 선택했으며 희승이는 영문 ‘hope’와 꽃가지가 어우러진 그림을, 희우는 두 마리의 새와 ‘사랑’이라는 글자를 그리기로 했다. 장지를 붙여 만든 캔버스는 미리 치자와 커피를 발라서 말려두었다. 민화의 느낌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다. 그 위에 각자 먹으로 글자 색을 칠해 넣는다.

“글자 도안 밖으로 먹이 조금 번져도 괜찮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문자도는 먹을 이용해 선을 추후에 정리하거나 덧칠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이날 체험을 지도한 이영선 선생님이 알려준다. 그래도 글자를 반듯하고 깔끔하게 칠하려는 희우의 표정은 진지하기 이를 데 없다. 희승이도 도안 위에 고개를 바짝 붙인 채 열중한다.

먹칠을 마친 후 채색에 들어간다. 가는 붓으로 그리자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희우가 조금 지친 기색을 보이자 엄마와 아빠가 응원을 보낸다. 가족 모두가 중간중간 서로의 작품을 들여다보며 ‘잘한다’는 칭찬도 아끼지 않는다. 이 가족의 행복 비결이 무엇인지 짐작하게 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문 과장 가족은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눈다. 외출 후 돌아오면 꼭 애정 표현을 하고, 뽀뽀로 굿 나잇 인사를 하는 것이 네 사람의 자연스러운 일상이자 사랑의 법칙이다.

4인 4색, 성격은 달라도 우리는 한 가족

문자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바림’ 채색을 할 차례. 바림은 색을 점점 연하게 하거나 진하게 하는 동양화 채색 기법으로, 반사광이나 그림자가 없는 동양화에서 나뭇의 입체감을 주기 위한 그라데이션 방법이다. 먼저 물감으로 색을 칠한 후, 물을 묻힌 붓으로 물감을 퍼트리듯이 살살 퍼준다. 이때 물감이 지나치게 번지지 않도록 붓에 물을 아주 조금만 묻혀야 한다.

엄마 종연 씨가 가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며 단연 에이스로 떠오른다. 문 과장도 꼼꼼하고 세심한 채색으로 수준급 실력을 선보인다. 그런가 하면 희우의 그림에서는 사내대장부다운 아이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색을 칠하는 희우의 붓 놀림이



거침없고 과감하다. 차분하게 그려낸 희승이의 그림에 비해 희우의 그림은 좀더 창의적인 추상화가 되어간다. 그러자 아빠가 먹 붓을 들어 아들의 그림 선을 가다듬는다. 어린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완성해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말하듯, 본인의 작품을 그릴 때보다 아빠는 더 심혈을 기울인다.

네 사람이 그려낸 행복이라는 작품

채색을 마친 후, 각자의 이름을 써넣자 네 개의 그림이 한결 그럴싸한 작품이 된다. 유독 문 과장의 표정이 뿌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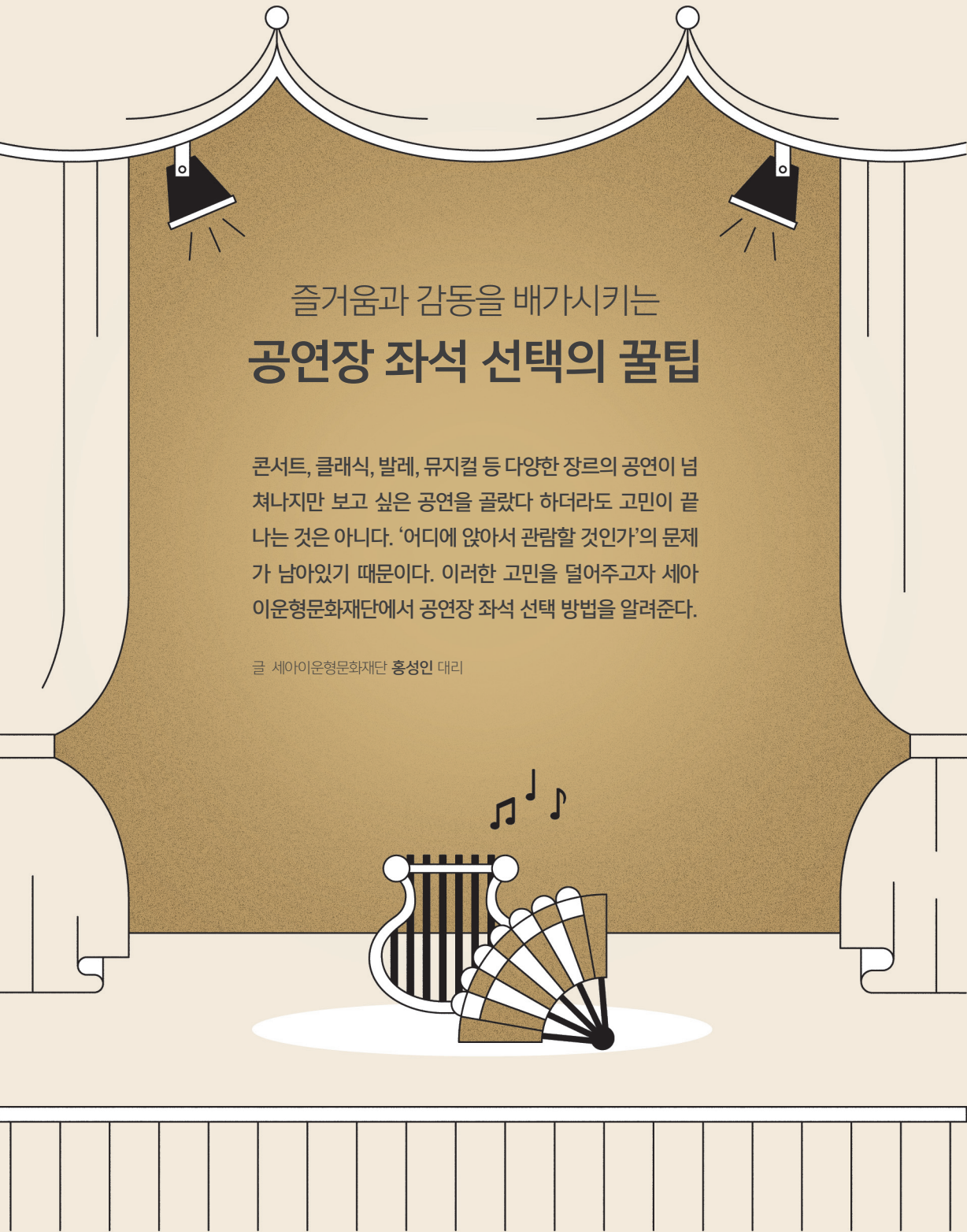
“오늘 제가 그린 그림처럼 복(福)된 가족의 모습, 즐거운 새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종연 씨도 ‘사랑 애(愛)라는 글자처럼 앞으로 애정이 가득한 가족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전한다.

“가족이 다 함께 그림을 그려서 재미있었어요.”

씩씩한 목소리로 체험 소감을 말하는 희우. 희승이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작품으로 간직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한다. 사랑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행복의 색을 차례로 덧입혀 완성한 그림. 오늘 예쁘고 사랑스러운 네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문성식 과장 가족이 그려낸 가장 아름다운 작품일 것이다.

<촬영 협조> Bliss 서울 송파구 오금로 87 참실리시온 1404호 T. 010-3610-3276



즐거움과 감동을 배가시키는 공연장 좌석 선택의 꿀팁

콘서트, 클래식, 발레,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넘쳐나지만 보고 싶은 공연을 골랐다 하더라도 고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 앉아서 관람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고자 세아이운형문화재단에서 공연장 좌석 선택 방법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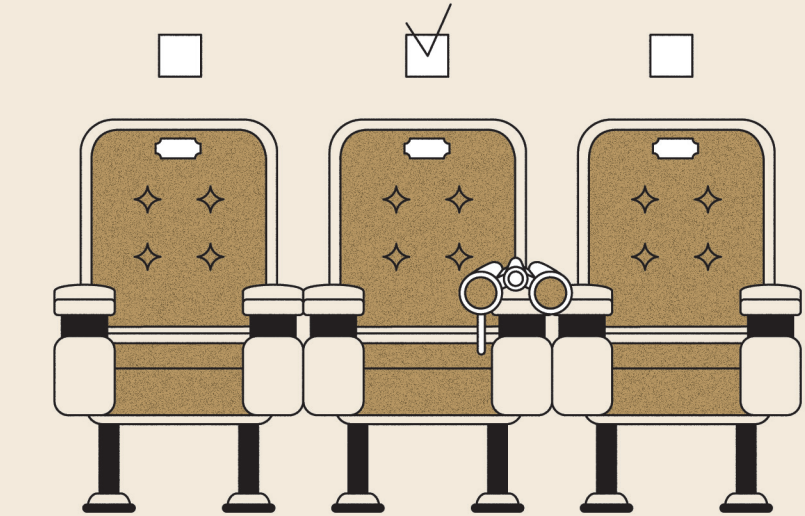
글 세아이운형문화재단 홍성인 대리

공연의 종류에 따라 선호하는 자리도 달라

영화와 달리 공연의 경우 관람석을 선정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무대에서 실황으로 펼쳐지는 공연 특성과 비싼 가격 탓에 선뜻 아무 자리나 선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연 공연장의 어떤 좌석을 선택해서 예매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좋은 자리 선택에 정답은 없다. 공연의 종류, 관객의 성향 등에 따라 선호하는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클래식 음악 공연의 경우 갖가지 악기의 소리가 조화롭게 모여져서 들리는 중간 정도 위치의 좌석이 가장 비싸게 책정된다. 반면 연극의 경우는 배우의 움직임, 표정, 떨림 하나하나를 온전히 전달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 좌석보다는 앞 좌석이 선호된다. 오페라나 뮤지컬 공연은 배우들의 동선이 한눈에 들어오고 최적의 음향을 즐길 수 있는 1층 중앙구역의 자리를 추천한다. 군무가 많은 발레나 무용 공연은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2층 좌석이 좋다.

클래식 음악회 중에서도 특히 피아노 독주 및 협주 공연은 1층 왼편 좌석을 권장한다. 건반을 하나하나 누르는 피아니스트의 섬세한 손동작을 볼 수 있어서이다. 한편 유명 지휘자가 진두지휘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의 경우라면 수많은 악기들의 소리가 모여 가장 조화롭고 아름답게 공



명되는 2층 중앙구역 자리가 가장 탁월한 위치이다. 지휘자의 세세한 표정과 손동작을 음미하며 클래식을 즐기고 싶다면 합창석도 좋다. 합창석은 일반 객석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지휘자의 모습을 정면으로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좌석에 따라 공연의 감동 달라질 수 있어

이와 같은 좌석 선택이 공연장에 처음 나서는 이들에게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좋은 공연이라면 그것을 보는 자리가 어디인들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지만 반대로 좋은 공연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좌석에서 보는 것이 그 감동을 조금이라도 더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말에는 무료한 하루와 잠시 이별

하고 공연장으로 나들이를 떠나보자. 생각보다 더 값진 하루가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공연장별 좌석 추천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2,283석) 1층 B구역 10~15열 / 2층 B구역 2~3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523석) 1층 C구역 10~15열 / 2층 C구역 1~3열
세종문화회관 (3,022석) 1층 C구역 7~10열 / 2층 C·D·E구역 1~2열
LG아트센터 (1,103석) 1층 중앙구역 8~12열
국립극장 (1,563석) 1층 C구역 8~12열, 15열 / 2층 C구역 1~2열
충무아트홀 (1,255석) 1층 중앙구역 10~14열 / 2층 중앙구역 1~2열
일반 공연장 1층 중앙 10~14열 / 2층 중앙 앞열

그룹 뉴스



‘나눔세아’ 캠페인 후원금 전달

지난 연말, 세아그룹은 수두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동훈이를 위해 ‘나눔세아’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 달 동안 전 그룹사 임직원이 모금활동을 통해 총 8,470,000원을 모았으며 이는 향후 동훈이의 수술비 및 물리치료비, 유모차 구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세아인 한 명 한 명이 사랑을 담아 작성한 응원의 메시지도 동훈이에게 전달됐다. 세아인이 나눔 따뜻한 마음이 동훈이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세아창원특수강



소형압연 합리화 진행

세아창원특수강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및 체제 구축을 위해 생산 용량 증대와 인덕션 히터(Induction Heater) 신설 등 소형압연 합리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세아창원특수강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배관 이설 등 사전 기초 공사를 실시했으며, 2월 말경부터 RSB 등 각종 설비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소형압연 합리화를 통해 세아창원특수강은 품질 및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에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세아제강



연말 나눔 실천 봉사활동

지난 연말, 세아제강은 각 사업장별로 연말 지역사회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서울 본사에서는 올해 마포종합복지관에서 꾸준히 진행한 마지막 점심 배식봉사를 마치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다. 군산강관공장은 소외 가정에 연탄배달을 진행했으며, 순천공장에서는 노인 요양시설을 방문해 김장봉사 및 시설물 청소 등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세아제강은 앞으로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주역이 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아메탈



‘사랑의 나눔 라면’ 기탁

지난 12월 12일, 세아메탈 원주공장 임직원 일동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내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나눔 라면’ 110박스(240만 원 상당)를 문막읍사무소에 기탁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세아메탈은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아베스틸



‘사랑의 쌀’ 기탁

1월 18일, 세아베스틸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군산시청에 ‘사랑의 쌀’ 백미 10kg 800포를 전달했다. 기탁된 쌀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소외 계층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태완 세아베스틸 노동조합 위원장은 기탁품을 전달하면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아 M&S



2017년 시무식

1월 2일, 세아 M&S는 여수공장에서 2017년 시무식을 진행했다. 마정락 대표이사는 창립 10주년인 지난해 첫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뜻깊은 한 해를 보냈다고 말하며, 혹독한 경영환경 속에서 원가 경쟁력 확보, 생산 및 판매량 확대, 신기술 개발 등 지속성장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세아 M&S 임직원들은 ‘글로벌 원가 경쟁력 확보’를 2017년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지난해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세아제강

입사

김명훈 포항공장 생산팀
김 철 포항공장 생산팀
강병주 포항공장 생산팀
정호원 포항공장 생산팀
강바름 포항공장 생산팀
윤상현 포항공장 생산팀
김창덕 포항공장 물류팀
김병탁 기술연구소 설비보전팀
정승현 창원공장 생산팀
최성희 군산판재공장 업무지원팀

출산

이창근 부산영업1팀
이현승 포항공장 연구개발팀
유수일 포항공장 생산3팀

조의

정연석 포항공장 설비보전팀(모친)
김영욱 포항공장 소경2공장(빙모)
김태우 포항공장 생산3팀(모친)

세아베스틸

입사

김규현 생산관리팀
배진현 생산관리팀
이노현 생산관리팀
허진원 생산관리팀
민성훈 공정연구센터
이상명 공정연구센터
정요섭 부산영업팀
하중승 마케팅팀
공현주 업무지원팀
양희민 기획팀
김기백 고객기술지원센터
김기범 고객기술지원센터

결혼

강희준 기술연구소 공정연구센터

조의

김승규 연구지원팀(빙모)

세아창원특수강

입사

윤상규 강관팀
정석현 강관팀
정준영 생산관리팀
지남주 생산관리팀
황광섭 대형압연팀
박경찬 소형압연팀
이상욱 소형압연팀
이재승 제강설비팀
조지훈 압연설비팀
구병욱 압연설비팀
이동현 강관단조설비팀
우한별 제품연구1그룹
오누리 공정연구2그룹
곽다빈 공정연구3그룹
김영재 공정연구3그룹
주재빈 품질보증팀
이예림 재경팀
박미옥 인재개발팀
문현우 구매1팀
허 윤 글로벌마케팅팀
전재현 글로벌마케팅팀
이서경 부산영업1팀

결혼

장예진 영업2팀

출산

김성청 3제강팀
박철완 3제강팀
전현진 대형압연팀
안춘환 설비지원팀
김지하 가공팀

박종하 압연설비팀

조의

김육환 대형압연팀(모친)
김 형 소형압연팀(모친)
정석영 재경팀(부친)
김위성 안전환경팀(부친)
김정대 강관팀(부친)
박상훈 공정연구2그룹(부친)

세아 FS

출산

뇌극겸 해외사업지원팀

조의

정영호 생산팀

세아 L&S

세아 ESAB

조의

권용대 생산팀(부친)

세아메탈

출산

김상현 원주공장 생산설비팀

조의

김기덕 창원공장 생산설비팀(빙모)

세아 M&S

결혼

최종천 자재팀
이임규 생산팀

세아엔지니어링

입사

유지선 품질보증팀
황용식 개발1팀
최덕용 생산팀
서정백 영업담당
고은희 구매팀
노지웅 서비스팀
이준희 서비스팀

결혼

박한경 서비스팀

조의

조남기 품질보증팀(부친)

입사

김진우 재경기획팀
강정민 재경기획팀
이세영 판재영업1팀
함승용 판재영업1팀
서우권 판재영업1팀
김세연 판재영업2팀
오대연 당진공장
김도윤 서울영업팀
김현수 부산영업팀
김창준 군산영업2팀

출산

신유철 판매기획팀

조의

차진국 물류영업2본부(부친)

Post Box 독자참여

Reader's Letters 세아 가족 여러분이 지난 호 <세아가족>에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세아의 역사를 다룬 '세아 히스토리' 코너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감사와 겸허의 기업 정신이야말로 오늘날 세아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하는 세아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권승란

감사의 표현과 겸허한 자세는 메마른 감성과 무미 건조한 일상을 바꿔주는 만능 열쇠인 것 같습니다. 고도원 이사장의 칼럼을 읽은 후, 앞으로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익한 내용을 사보에 실어준 <세아가족>, 고맙습니다.

- 임정민

동훈이의 가슴 아픈 사연을 읽고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동훈이의 사연을 보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아 임직원들의 작은 도움이 동훈이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세아의 모토를 언제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 김형식

송년호답게 세아의 2016년을 돌아볼 수 있는 '10대 뉴스'편이 있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지난 1년간 세아에 있었던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저 역시 2016년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사보 감사합니다.

- 윤선혜

세아 ESAB의 업계 최초 온라인 직거래 서비스 개시를 축하합니다. 시대에 발맞춰 민첩하게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는 도전적인 모습이 지금의 세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번 서비스가 보다 많은 수익 창출과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서비스가 되길 바랍니다.

- 유재범

세아의 정신인 감사와 겸허에 대한 칼럼이 감명 깊었습니다. 세아에 이렇게 훌륭한 기업 정신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네요. 세상 모든 기업이 감사와 겸허의 정신을 되새킨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더 아름답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 허선술

Quiz <세아가족> 1+2호를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퀴즈 정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1. 2017년 정유년을 상징하는 동물은?

1. 흰 닭 2. 붉은 닭 3. 푸른 닭 4. 검은 닭
2. 올해 신년회의에서 세아업적상을 수상한 팀은 총 몇 개 팀일까요?

1. 6개 팀 2. 7개 팀 3. 8개 팀 4. 9개 팀
3. 그라데이션의 일종으로 색을 점점 넓게 또는 점점 진하게 표현하는 동양화의 채색 기법은?

1. 바림 2. 수묵석채 3. 발묵 4. 백묘법

지난 호 퀴즈 정답자			
권승란	전북 군산시 설림안3길	윤선혜	경남 창원시 노산서길
임정민	경남 창원시 귀산로	유재범	서울 성북구 종암로
김형식	경기도 평택시 자산로	허선술	경기 의정부시 회룡로

사우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 감명 깊게 본 영화나 책 등을 추천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hyunho.lee@seah.co.kr / 02-6970-0095

<세아가족> 사보기자

고은비	세아제강 인사운영팀(본사)
이병준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이현구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김재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판재공장)
강태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강관공장)
장호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순천)
이다은	세아베스틸 기획팀(본사)
정보람	세아베스틸 업무지원팀(군산)
하지운	세아창원특수강 기획팀(서울)
박소현	세아창원특수강 업무지원팀(본사)
류상우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서울)
이형호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본사)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충주)
서미성	세아 FS 인사팀(서울)
장소라	세아 FS 업무지원팀(평택)
윤서연	세아 FS 업무지원팀(광주)
장영원	세아 ESAB 경영지원실
신상호	세아메탈 경영기획팀(서울)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이상진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
이상기	세아 E&T 경영지원팀
김재홍	세아 M&S 경영지원팀
김미희	세아 L&S 재경기획팀



We are professional

철에 대한 세아의 실력과 전문성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강관, 특수강, 자동차 부품, 용접재료, 물류, IT에 이르기까지

창조적 혁신으로 하나되어 움직이는 철강소재 전문기업, 세아!

강철같은 실력으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세아인은 **정직, 열정, 실력**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